

# 노인성 안질환

백내장은 수정체가 흐려져 빛을 투과시키지 못하면서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며, 더욱이 뚜렷한 예방책도 없다. 따라서 백내장은 가능한 한 발병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아야 떨어진 시력을 거의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물요법은 이미 진행된 백내장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지 못하고, 단지 진행을 더디게 하는 일종의 보조요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백내장을 확실히 극복하기 위해선 수술을 받아야 한다.

‘몸이 천 냥이면 눈은 구백 냥’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노인들에게 눈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과 같은 노인성 안질환은 발병 초기 뚜렷한 자각증세가 없기 때문에 정기검진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백내장

노인성 안질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다. 실제로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2003년 전국 53개 지역 65세 이상 노인 7,750명을 대상으로 눈 검진사업을 벌인 결과, 백내장 유병률이 42.8%(4,383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은 쉽게 말해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흐려져 빛을 투과시키지 못하면서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며, 더욱이 뚜렷한 예방책도 없다. 따라서 백내장은 가능한 한 발병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아야 떨어진 시력을 거의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치료는 크게 약물요법과 수술로 나뉜다. 하지만, 약물요법은 이미 진행된 백내장을 원래 상태로 회

복시키지 못하고, 단지 진행을 더디게 하는 일종의 보조요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백내장을 확실히 극복하기 위해선 수술을 받아야 한다.

### • 자각증상

- ① 시야가 안개가 낀 것 같이 뿌옇게 보인다.
- ② 밝은 곳에서 오히려 더 잘 보이지 않는다(주맹현상).
  - 햇빛이 화창한 야외
  - 일출·일몰 시 해를 등지고 있는 사물을 볼 때
  - 야간 운전시 반대편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출 때
  - 밝은 조명 아래서 책이나 서류 등을 볼 때 더 심하다.
- ③ 눈부심 현상으로 인해 눈을 자주 찡그리게 된다.
- ④ 갑자기 일시적으로 시력이 회복되어 사물이 잘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안 보인다.
- ⑤ 한쪽 눈으로만 봐도 사물이 간혹 둘로 보인다(복시현상).

## ▷녹내장

정상치(10~20mmHg)보다 상승한 안압(안구의 압력)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가 좁아지다가 결국 실명하게 되는 질환이다.

문제는 평소 정상 안압을 보이던 사람에게도 때때로 녹내장이 나타난다는 사실. 따라서 안과 전문의들은 40세 이상이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안압검사와 시신경검사를 동시에 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치료는 환자들의 눈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물요법과 레이저요법, 수술요법 등의 순서로 시술하는 게 원칙이다. 최근에는 단기간에 치료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치료법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다.

### • 자각증상

- ① 시야가 흐리고, 시력이 저하된 것 같은 느낌이 있다.
- ② 머리가 무겁거나 아프고, 어깨가 결린다.
- ③ 기분이 안 좋고, 메스꺼움 및 구토 증세가 있다.
- ④ 불빛을 보면 그 주위에 무지개 비슷한 것이 보인다.
- ⑤ 눈이 무겁고 피곤을 느끼기 쉽다.
- ⑥ 눈이 아프고 이물질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다.



하나로 꼽힐 정도이다.

실제로 서구에서는 이미 황반변성이 성인 실명 원인 1위에 올라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최근 황반변성으로 실명 위기에 놓이는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변성 초기에 특별한 이상을 거의 느낄 수 없어 한참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안과를 방문, 검진을 받는 게 좋다.

황반변성은 크게 습성과 건성으로 나뉘는데, 망막의 빛수용체 및 세포들이 죽는 건성황반변성의 경우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다. 다만, 시력 저하가 아주 서

서히 진행되므로 실명될 위험성이 습성황반 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편 황반 아래쪽에 새 혈관이 생기는 습성황반변성은 실명의 위험이 크긴 하지만 이 역시 조기에 발견하면 레이저요법이나 항산화제 처방 등의 약물치료로 어느 정도 실명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노인성 황반부 변성

‘황반’은 시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망막 중심부를 가리킨다. 이 황반이 산화현상으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황반부 변성이다.

노인성 황반부 변성은 나이가 들면서 황반부에 찌꺼기가 쌓여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면서 황반부가 파괴되는 것으로, 심할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그래서 황반변성은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과 함께 실명의 3대 원인 가운데

### • 자각증상

- ① 글자체가 흔들려 보인다.
- ② 직선이 굽어보인다.
- ③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글자의 공백이 생긴다.
- ④ 시야가 흐릿하고 검거나 빈 부분이 있다.
- ⑤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색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한다. ㉞

〈출처 : 국민일보〉